

For Immediate Release

2015년 3월 3일

연락처:

- 심혜진, 미주한인가정폭력방지연대 (KACEDA), (714) 392-2900
- Orchid Pusey, Asian Women's Shelter, (510) 590-2863
- Nilda Valmores, My Sister's House, (916) 868-7820
- Beverly Upton, Domestic Violence Consortium, (415) 830-8322

가정폭력 생존자 조난희, 아동유괴혐의 유죄 판결에 지역사회 반발

2015년 3월 2일 (화) – 조난희씨의 지지자들은 아동유괴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조씨측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민신분 보장을 위해 발급되는 U-비자를 위해 이민국에 이미 서류를 접수한 상태이나, 유죄 선고와 함께 조씨는 강제추방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녀의 딸과 영구적으로 이별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여러 한인 시민단체, 가정폭력 방지 단체, 학생 단체들과 뜻있는 시민들은 조씨를 응원하기 위해 공판참관 및 청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기소 재량권을 행사해 그녀의 강제추방을 중단하라는) 서명 운동을 전개해왔다.

조씨는 가정폭력 생존자이다. 딸 다빛 양과 함께 전 동거인의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피해 2009년 한국으로 피신한 조씨는 2014년 7월 미국 재입국 당시 체포되었고 딸과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격리되었다. 조씨는 아동유괴 혐의로 2014년 12월 재판에 회부되었고 일심은 배심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미결정 심리로 끝났다. 하지만 올로 카운티 검사는 지속적으로 조씨의 재심을 요구하여 그녀를 2015년 2월 20일 다시 법정에서 세웠다. 조씨는 아직까지도 이민신분 문제로 인해 7개월째 보석없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딸 다빛양과 면회할 권리조차 박탈된 상태이다.

미주한인가정폭력방지연대(KACEDA)의 심혜진씨는 “판결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가정폭력 생존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는 가정폭력 생존자인 난희씨가 아동유괴 혐의로 기소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심혜진씨는 “힘든 공판을 견뎌낸 난희씨의 용기와 그 의연한 자세로부터 힘을 얻는다”며 “난희씨가 다빛양과 재회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모녀를 위해 싸울 것”을 약속했다.

미주한인가정폭력방지연대는 이민청년단체(Immigrant Youth Coalition)와 아시안법률코커스(Asian Law Caucus)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검문소국을 대상으로 ‘조난희 강제추방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 청원서는 bit.ly/standwithnanhui 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북가주가정폭력반대연합(Community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과 한인가정폭력방지연대는 항소 준비, 이민국 심사, 양육권 심사 등 법률 비용을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부금은 온라인 모금 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다: <https://crowddefend.com/campaign/stand-with-nan-hui-2/#>

###